

단독주택의 진입외관에 나타난 주거 아이덴티티

박 선 희(전북대학교 생활과학부 교수)

1. 서 론

주택외관의 진입 부분은 사회에 속하는 공적영역/속의 세계에서 사적인 가족영역/성의 세계로 들어오는 프라이버시를 위한 완충영역임과 동시에 집의 이미지를 외부에 알리는 표현체이다. 주택은 집단 아이덴티티의 비언어적인 표시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특별한 문화와 집단의 상황속에서 주거와 아이덴티티가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대한 보다 큰 이해와 감각은 인간생활을 제한하기보다는 오히려 풍부하게 해주는 주거디자인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는 단독주택의 진입외관에 나타난 특성을 통해 나타난 한국인의 주거아이덴티티를 찾아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과 목적

전주시의 두 지역(H, M지역)을 선정하여 현지조사방법과 내용분석방법을 병행한다. 주택 진입외관에 대한 관찰 및 크기측정, 스케치, 사진촬영 등을 통한 실증적 자료수집을 한다. 자료분석의 보완을 위하여 각 건물에 관한 건축물 관리대장을 활용한다.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주거진입외관에 나타난 아이덴티티를 고찰한다.

이를 고찰하기 위한 아이덴티티 지표 선정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담장과 대문의 크기, 개방과 폐쇄에 의한 프라이버시 조절
- 둘째, 대문과 실내 출입구의 방향에 나타난 2차적 프라이버시 조절
- 셋째, 주택의 전체외관과 대문외관의 의장적 조화여부에 따른 미적 조절
- 넷째, 어프로우치 형태 및 설비에 따른 진입공간의 특성

3. 결과 및 고찰

1) 대문과 담 높이 및 형태에 따른 특성은 프라이버시 조절의 관련성 보다도 안과 밖의 상징적 경계를 건축주의 과시적 정체성과 관련되어 물리적으로 확대시킨 심리적 측면이 강하게 나타났다.

2) 대문과 같은 방향인 병렬유형은 직각으로 꺾여서 실내에 출입하는 경우에 비하여 프라이버시의 2차적 조절 욕구가 완화된 형태이다. 반대로 직각은 집 안뜰에서의 2차적

프라이버시욕구를 보다 강하게 반영한다. 이러한 경향은 호지역의 경우 많이 나타나 2차적 프라이버시에 대한 의식의 상승 측면이 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두 지역 주택 중 초기에 지어진 주택의 경우에는 집은 한옥 목조에 대문은 시멘트 슬라브 형태로 지어 외관상 아주 이질적 형태를 지닌 집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나 (27.3%) 이 후로는 점차 동일한 경향으로 분포되어 가고 있어 외관에 대한 미적 고려에 대한 표현이 상승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4) H지역이나 M지역 모두 돌이나 벽돌 등을 사용하여(63.3%, 42.3%) 진입 어프로우치에 대한 정서적 측면을 고려하는 경향을 볼 수 있었으나 M지역의 경우는 과거의 시멘트 마감도 38.5%로 나타나 정서적 질적 향상에 대한 요구가 변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두 지역 중 잔디를 식재하여 정돈된 그린환경을 추구한 세대는 13세대 정도로 나타났다.